#36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파트

향후 계획 및 참고사항 입니다.

#37

계획을 보기에 앞서서 진행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 3개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진행한 Sprint 1의 달성률은 63.3%정도이지만 Sprint2에서 가져와서 진행한 뉴스 감성분석 스토리를 감안하면 80%정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Sprint 단위로 프로프로젝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보니 작업들이 하나하나씩 밀린 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스토리의 작업들을 Sprint2에서 마무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8

향후 저희가 진행하게 될 Sprint2입니다.

Sprint 2는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Hbase에 전처리 후 적재해둔 뉴스데이터를 꺼내와서 뉴스데이터가 긍정을 담고 있는지 부정을 담고 있는지 분류해주는 기준인 감성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배우지 않았던 MLP(자연어처리)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할 Sprint2의 길이 벌써부터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39

다음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결과물인 서비스 구현에 대해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 코드나 종목명으로 검색을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첫번째 주가 값 예측, 두번째 주가 변동성 예측, 세번째 뉴스 감성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일단 목표는 서비스를 웹으로 구현해보는 것이지만 웹 구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가능한 부분까지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40

마지막으로 느낀점입니다. 제대로 진행한 Sprint는 하나이지만, 벌써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한달이나 지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습니다. 느낀점을 나열하자면 슬라이드를 꽉채워도 모자라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이 바로 어디에 초점(포커스)을 맞춰야할지 였습니다. 분석가 과정이니까 데이터분석에 초점을 맞출지, 프로젝트의 완성은 결국 서비스 구현이니까 구현에 초점을 맞출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봐야 좋을지 등등. 고민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지속적인 회의끝에 고민들을 잘 조율해서 프로젝트에 골고루 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툴들을 접하면서 Agile, JIRA, Slack, NIFI등 교육과정에 없던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데만 해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플랫폼 툴이 유료인 점과 무료인 버전을 사용하면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부족하여 진행에 있어서 생각보다 꽤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제한사항이었습니다.

$41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던 참고문헌들입니다. 주제가 워낙 초보자들이 다루기엔 어려운 주제다보니 시작함에 있어 감도 잘오지 않았는데 여러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올라팀의 발표를 마치며, 저희는 아직 갈길이 멀기에 남은 기간 더욱더 열심히 해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받겠습니다.